

영어행위에서 정보전달의 통속화실현

교수 박사 서 중 남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는 리해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써먹을수 있도록 학습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전집》 제2권 197페이지)

최근시기 언어행위에서 정보전달의 통속화수준을 높이는것은 언어사용자들과 학습자들속에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그것은 언어사용자들과 학습자들이 제한된 언어습득조건과 과정의 요구에 맞게 정보전달에 대한 원리적인식에 기초하여 언어행위에서 보다 과학적인 자료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한데로 나가고있기때문이다.

언어행위에서 정보전달을 통속화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국내외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논의되어왔다.

참고서 《통속적인 영어글투에 대한 연구》(외국문도서출판사, 석정근, 주체92(2003))에서 《말과 글을 통속화하는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인민대중의 지향의 반영이다. 영어에서도 이 요구를 반영하여 글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쓰는것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문제로 발전하고있다.》라고 하면서 통속적인 글은 누구나 다 알기 쉽고 정보교환에 편리하게 되어야 한다고 밝히였다.

참고서 《영어변종에 대한 사회언어학적연구》(외국문도서출판사, 리주철, 주체104(2015), 270~271페이지)에서는 《언어란 그의 구조를 잘 안다고 해서 그리고 많이 숙련한다고 해서 사회적교제의 환경과 목적에 맞게 적중하게 사용할수 있게 되는것은 아니며 언어사용의 정확성도 적합성이 담보될 때에야 의의를 가진다.》라고 하였다.

언어학자 프랭크 파커(Frank Parker)는 《비언어학자들을 위한 언어학(Linguistics for Non-linguists)》에서 《통속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것이여야 한다. 즉 그것은 어떤것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지를 받을 때 얻어지는 속성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통속화는 주로 문체론적현상으로 분석되어왔으나 지금에는 언어생활에서 대중적인 성격으로 평가되는 보편적인 언어현상으로 인식되고있다고 하였다.

여러 언어학자들은 정보전달의 통속화를 언어환경에 대한 적합성의 기초로 보면서 통속적인 정보는 리해하기 쉽고 널리 쓰이며 신속한 교제실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하여보면 정보전달의 통속화는 주어진 사회적교제의 환경과 목적에 맞게 사람들속에서 리해하기 쉽고 널리 쓰이며 편리하게 교제하게 하는 정보전달방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본문에서는 영어행위에서 정보전달의 통속화실현방식과 실현방도를 기본과제로 제기하고 체계화하여 영어학습자들과 교육자들이 주어진 교제환경과 교제대상에 맞게 적합한

언어자료를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려고 한다.

2. 본 론

2.1. 영어행위에서 정보전달의 통속화실현방식

정보전달의 통속화실현방식은 일반적으로 언어적실현방식과 비언어적실현방식으로 갈라볼 수 있다.

언어적실현방식은 언어적수단을 리용한 정보전달방식으로서 언어교육의 기본대상으로 되며 비언어적실현방식은 일련의 비언어적수단들 즉 몸짓, 눈짓, 각종 신호와 그림, 표식 등에 의한 정보전달방식을 말한다. 논문에서는 정보전달의 통속화실현방식에서 주되는 방식인 언어적실현방식을 보기로 한다.

최근시기 언어학자들속에서 언어정보전달의 통속화보장을 위한 연구는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에 깊이 들어가 포착된 자료들로 언어자료기지를 축성하고 빈도수가 높은 관습화된 언어자료들과 현시기 새로운 양상을 띠고 널리 쓰이는 자료들 그리고 외국어와 자기 민족어와의 접촉과정을 통하여 굳어지고 보편화된 통속적인 언어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어진 언어환경과 교제대상에 적합한 실용적인 교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행위에서 정보전달의 통속화실현방식에 대하여서는 어휘화된 단어결합과 단어합성의 사용을 통한 통속화, 관습화된 어휘표현의 사용을 통한 통속화, 관습화된 문법적형태적용을 통한 통속화, 관습화된 어휘문체론적수법적용을 통한 통속화의 측면에서 보기로 한다.

2.1.1. 단어결합과 합성의 사용을 통한 통속화

영어에서 단어결합과 합성이 두 단어범위에서 진행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셋 혹은 그이상의 단어들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실례로 post-it notes(뒤면에 접착제를 바른 색종이, 알림표), do-it-yourself(집에서 자체로 하는 일, 가사), shopping on line(망을 통한 물건사기), nine-to-five office job(9시부터 17시까지 하는 로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단어결합과 합성들은 최근에 출판된 영어참고서들과 인터넷망을 통하여 수집된 것들로서 사전상에서는 그 대역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그 사용상 측면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통속적인 어휘표현들로서 입말과 글말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최근 영어사용자들은 단어줄임과 합성과 같은 여러가지 단어조성수법들을 동시에 리용하면서 새말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례: camcorder (사진기가 설치된 녹음기)

faxphone (팩스전신기/전화기)

sci-tech complex (과학기술전당)

이와 같은 새말들은 독특한 단어조성수법으로 하여 그 의미가 집약적이면서도 생동하고 풍부한 것으로 하여 영어사용자들속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2.1.2. 관습화된 어휘표현의 사용을 통한 통속화

영어에서 어휘적의미의 관습화는 굳어진 단어결합들에서 많이 찾아볼수 있다.

단어결합 **the red carpet**는 《붉은 주단》으로 이해될수 있지만 영국사람들속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붉은 주단을 펴고 영접례식을 하는데서 유래되어 《경의식》, 《정중한 환대》라는 의미로 쓰이고있다. 또한 **red ball**은 열차나 버스 등에 붉은 색의 동그라미표식을 붙이는 관습에서 생겨나 지금 **the red ball train**이 《급행열차》라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단어결합 **white lie**는 아이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어른들이 전통적으로 써온 관습적인 표현으로서 《악의 없는 거짓말, 교훈적인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관습화된 어휘표현들은 해당 민족의 사고방식의 반영으로서 민족마다 자기 고유의 특성을 가진다.

영어의 비유표현과 조선어의 비유표현의 대응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	영 어
거부기처럼 꾸물거리는	as slow as a snail(달팽이같이 꾸물거리는)
황소같이 힘이 센	as strong as a horse(말처럼 힘이 센)
양처럼 온순한	as gentle as a dove(비둘기처럼 온순한)

관습화된 어휘표현의 사용을 통한 통속화실현에서 해당 민족의 오랜 역사적관습화로 민족성을 짙게 나타내고있는 성구, 속담들의 사용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Old friends and old wine are best.(친구는 옛친구가 좋고 옷은 새옷이 좋다)

He who laughs last laughs best.(최후에 웃는자가 진짜 승리자이다)

Little and often fills the purse.(티끌모아 태산)

이처럼 해당한 단어의 어휘적의미조성의 역사적전통과 그 변화발전 및 관습에 대한 이해는 그 단어나 단어결합 및 표현들의 정확한 의미와 활용을 과학화하는데서 실천적의의를 가진다.

2.1.3. 관습화된 문법적형태적용을 통한 통속화

영어에서 문법적형태적용에서는 고대영어시기에 전형적으로 쓰이던 굴절형태가 소극화되는 반면에 어순과 보조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동사비인칭형이 다품사화되고 그 변종들이 생겨나 쓰이게 되면서 관습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실례는 영어동사 **be going to**의 미래적쓰임과 **be able to**와 **have to**의 양태적쓰임 그리고 일부 부사들인 **finally, accordingly, consequently, nevertheless, moreover, hence** 등과 명사단어결합들인 **on the other hand, in case, at the same time, in a word, in brief, in short, by the way** 등의 접속사적쓰임, 일부 자동사들의 련결사적쓰임 등에서 찾아볼수 있다.

또한 문법적관습화는 입말언어행위에서 정확한 문장형식을 갖추지 않은 형태의 말들이 해당한 언어정황에서 쓰이기 시작하여 지금은 매우 적극적인것으로 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개별적인 단어나 단어결합은 일정한 형태론적요구와 정보론적요구에 부합되고 문법

적관습화가 이루어지면 진술성을 가진 완전한 문장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일정한 형태론적요구는 문법구조상의 요구이고 정보론적요구는 진술구조상의 요구이다.

Hey, you! (여보게, 친구!)

Yes, madam? (예, 부인, 무슨 일입니까?)

Certainly, at 8:15.(좋아, 8시 15분에 만나세.)

우의 실례와 같은 문장들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들에서 시간절약을 위하여 쓰이며 구정보와의 연계밑에 신정보를 담고있다.

영어에서 경구문은 주로 전통적인 언어문화에 의하여 형성되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속에서 공고한 구조적형식으로 인식되고 관습화되어 널리 쓰이고있다.

No parking! Wet paint!

Easy come, easy go.

정확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구조의 영어문장들은 통신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하여 텔렉스나 손전화의 통보문들에서 자주 쓰이고있다.

RUOK? (Are you OK?)

CU2 morrow.(See you tomorrow.)

F2T? (Are you free to talk?)

일부 학자들은 언어행위의 기본단위인 문장의 구조적형식화에 대한 견해에서 문법적 관습화는 세계를 인식하고 반영하는 사고형식이 문장구조에 반영되는것과 많이 관련된다고 하였다.

한편 사람들의 언어문화생활에서의 변화도 영어문법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즉 일부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는 문법의 규범적인 틀에서 벗어나 언어자료들을 사용하는 습관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것이 차츰 굳어지고 보편화, 전통화되게 된것이다.

○ 대명사의 부사적쓰임

영어지시대명사에 일부 문법적요소들이 첨부되어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들이다.

I have done this much.(나는 이만큼 했다.)

I cannot walk that far.(=so far)(그는 그렇게 멀리까지 걷지 못한다.)

I caught a fish of this big.(=so big)(나는 이만한 물고기를 잡았다.)

Oh, it isn't that urgent.(=so urgent)(아, 그렇게까지 급하진 않습니다.)

○ 형용사의 명사적쓰임

The mysterious unknown kept his room.(이상야릇한 알지 못할 그 무엇이 방안을 괴이하게 짓눌렀다.)

○ 자동사에 의한 피동의미의 표현

The cloth washes well.

These books sell well.

○ 상태동사의 지속시칭으로서의 쓰임

I am feeling better today.(나는 오늘따라 기분이 좋다.)

일반적으로 상태동사가 지속시칭으로 잘 쓰이지 않지만 기분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지속시칭형태로 쓰인다.

최근시기 언어행위에서 언어관습화의 산물로 나타나는 문법적수형태들에 상당한 관

심을 돌리고있다. 여기에서는 개별명사의 수범주형태(문법화)와 관습화된 수범주형태(어휘화)들을 대비해보기로 한다.

water→waters/work→works[어휘화]

antenna→ antennae[어휘화] → antennas[문법화]

여기서 우리는 셀수 있는 개별명사에는 규정된 문법화가 적용되며 관습화된 형태에는 어휘화가 작용하게 된다고 볼수 있다.

현대영어에서 이러한 수형태의 이중성은 영어교육에서 복잡한 문제로 된다. 그 유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이중복수형태

이중복수형태는 하나의 대상단어에 어휘화와 문법화가 구별되는 형태이다.

brother brothers(형제들)[문법화]

brethren(동포)[어휘화]

○ 절대복수형태

절대복수형태는 복수형으로만 쓰이는 형태이다.

scales(천평, 저울) tongs(집게)

pants(짧은 바지) suspenders(멜띠)

linguistics(언어학) economics(경제학)

○ 분화복수형태

분화복수형태는 단수형과 복수형의 뜻이 서로 분리되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단수형의 개별적인 단어의 의미 산수적합이 아닌 새로운 어휘적의미조성의 산물로 된것으로서 새로 생겨난 복수형의 의미가 기초로 되는 단수형의 의미와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형태이다.

air(공기) → airs(분위기) / color(색갈) → colors(군기)

custom(습관) → customs(세관) / force(힘) → forces(군대)

2.1.4. 관습화된 어휘문체론적수범적용을 통한 통속화

영어에서 어휘문체론적관습화는 여러가지 수법들로 민족적인 감정정서를 독특하게 묘사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영어본문들에서 쓰이는 어휘문체론적수법들로는 비유법, 과장법, 에두름법, 야유법 등을 들수 있다.

Tom's life was as poor as a church mouse.[비유법]

(톰의 생활은(교회당의 생쥐처럼) 몹시 빈곤하였다.)

To use a steam-hammer to crack nuts.[과장법](대포로 참새잡기.)

Tom kicked the bucket.[에두름법](톰은 뒤흔다.)

How clever of you![야유법](참 령리하군!)

2.2. 영어행위에서 정보전달의 통속화 실현방도

2.2.1. 영어단어조성과 그 리용의 변화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적극 리용하는것이다.

최근 영어사용자들은 단어줄임과 합성, 혼성과 같은 여러가지 단어조성수법들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새말들을 적극 만들어쓰며 자기의 의사를 통속적으로 신속히 전달하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조성수법들에 의거하여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포착하는것은 신속한 정보전달의 주요요구로 나선다.

2.2.2. 영어의 어휘습득과 활용에서 해당 외국어와 모국어사이의 언어접촉관계를 긴밀하게 하는것이다.

언어의 접촉현상은 두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 새로 생겨나는 사물현상이나 대상에 대하여 접촉되는 언어의 어음소들을 접촉하는 언어의 의미소로 음역하는 방식을 리용하면서 자기 언어의 어음구성에 맞게 적응시키는 언어현상이다.

분석한데 의하면 영어와 우리 말의 접촉현상으로 생겨난 새말들은 두 언어의 어음소와 의미소가 일정한 정도로 일치하면서 그 의미가 매우 통속적인것으로 하여 두 언어에 대한 인식과 습득능력을 높여주고있다.

따라서 두 언어의 접촉현상에 대한 리해는 언어습득과 활용을 통속화하고 신속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한 언어적조건을 마련하게 한다.

2.2.3. 영어사용자들의 언어관습에 최대한 익숙하는것이다.

최근시기 영어사용자들이 관습화된 언어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리용하고있는 조건에서 영어학습자들은 영어습득과정에 영어의 일반적인 언어자료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영어의 언어관습에까지 정통하여야 영어를 모국어처럼 소유하고 활용할수 있다.

2.2.4. 문법적규범화가 뚜렷하지 않은 언어자료들을 해당 언어정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것이다.

영어의 일부 언어자료들은 문법적규범화의 측면에서 볼 때 명백하지 못한것들이 있다. 이런 리유로 하여 흔히 영어문법에는 제외적인것이 적지 않다.

영어인칭대명사 **we**의 쓰임을 실례로 들수 있다.

영어문장에서 인칭대명사 **we**는 의미기능적으로 1인칭만을 가리킬 때도 있고 2인칭이나 3인칭을 포괄하여 가리킬 때도 있다.

우선 I대신에 **we**를 써서 자기 개인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보다 정중성과 공정성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 “We have ordered it already”, the chairman was angry.

(《그것을 이미 지시한 상태요.》라고 의장은 노발대발하였다.)

또한 저자나 연설자 등이 I대신에 **we**를 써서 독자나 청중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의 의사를 대변하고있다는것을 암시해준다.

예: Our present plan is to add more about what we already touched upon our preceding

volumn.(현재 나의 계획은 내가 이미 쓴 책에 더 많은 내용을 첨부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 특별히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고 《같은 처지의 사람은 누구나 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we를 쓰게 된다.

례: We don't know him, he is honest.(그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현대영어에는 you대신에 we를 써서 친근감, 추어주기, 동정, 격려 등과 같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실례는 의사나 간호원이 아침에 병동에 들어설 때 자신도 환자인체 하면서 《How are we this morning?》(오늘아침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환자가 《We are feeling quite well.》(참 좋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때 환자는 대답을 하고보니 방에는 자기 혼자뿐이었으나 크게 잘못했다는 감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실례로 상대방을 호되게 비판하면서 그것이 비록 상대방의 결함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결함이라는 의미에서 《Aren't we getting just a trifling insolent?》(좀 무례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라고 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을 크게 자극시키지 않는 경우를 들수 있다.

그러므로 문법적규범화가 뚜렷하지 않은 언어자료들을 교제의 목적과 해당 언어정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여 고정격식화된 규범문법의 틀에서 벗어나 정보전달의 통속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며 교제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게 된다.

2.2.5. 입말체언어교제에서는 문체론적관습화문제를 특별히 고려하는것이다.

문체론적관습화는 언어의식과 사고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습화이며 동시에 전통적인 민족적어감과 감정정서의 표현방식으로 된다. 따라서 영어학습에서는 문체론적으로 관습화된 언어자료들을 많이 습득하며 그 활용능력을 갖추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의 의식속에 자리를 잡고 오랜 력사적과정에 굳어진 관습과 사람들의 필수적인 언어적사고는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있는것으로 하여 력사적으로 형성되어 굳어진 문체론적관습까지 습득하는것은 해당 언어에 완전히 정통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글말체문장들에서 문법규범의 요구에 맞는 언어자료의 리용을 기본으로 한다면 입말체문장들에서는 통속화를 위한 언어자료의 리용을 중시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전달의 통속화를 보장하는 문제는 주로 입말체언어교제에서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고 영어습득과 실천에 구현해나가야 한다.

3. 결 론

론문에서는 최근시기 영어학습자들이 영어교육과 실천에서 보다 합리적인 언어자료를 습득하고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는데서 의의가 있는 정보전달의 통속화문제를 제기하고 그 본질과 영어행위에서의 정보전달의 통속화실현방식 그리고 그 방도문제를 론하였다.

그러나 현재 영어가 세계적관도에서 널리 쓰이고있는것으로 하여 정보전달의 통속화

문제는 계속 복잡하게 제기되고있으며 새로운 언어자료의 수집과 분류, 그 활용과 관련한 연구는 끊임없이 계속되게 된다.

우리는 언어생활에서의 정보전달의 통속화문제를 중시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근기있게 진행하며 그 성과를 교수사업에 적극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외국어습득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며 높은 외국어실천능력을 소유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해내는것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통속화, 영어행위, 정보전달